

지역 소식통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협약

중소기업청 지정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기관인 부안제일고(교장 조병규)의 취업이 예정된 28명의 학생들과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지부장 배인태)는 지난 9일 부안제일고 춘천홀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 후 (주)경동피오에이 등 13개 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로, 여름방학 중에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익히려고 건설기계제작, 식품가공, 용접, 수취제어 등 4개 과정의 취업맞춤반 훈련에 실시했다.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는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7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협약식에 참석한 배인태지부장은 "꼭 필요한 경제간담회, 취업 후에 성실하게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 주산면 주민 대상 생활 속 건강관리 강연 개최

부안군 주산면이 면민들의 백세 인생을 위한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위한 강자가 10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돼 면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날 강연은 인성 코리야 강성수 교육위원을 초빙해 귀로만 듣는 강연이 아닌 다양한 구성과 참여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높은 요구 및 만족도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산면 주민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초대해 달라"고 매우 만족해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돌봄복지 실현 위해 노력하겠다”

김생기 정읍시장, 라디오 출연 민선 6기 성과·현안사업 등 밝혀

“어느 누구도 복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생기 시장이 도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구축,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 첨단과학산업단지 활성화, 축산정책 등 현안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KBS전주 라디오 아침 시사프로그램 '팩트풀전북(제작진행 함윤호 아나운서, 표준FM96.9MHz)'에 출연한 김 시장은 민선 6기 3주년을 보낸 소감과 성과, 가장 보람 있던 일 등 그간 소회를 털어냈다.

김 시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증대는 당사자들의 복지를 넘어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돌봄복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읍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며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 등의 이점과 KTX개통 등 탄탄해진 기반 시설 등에 힘입어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7월 말 현재 22개 기업을 유치(분양률 64%)했고 연말 100% 분양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대 국책연구소 유치 등의 첨단과학도시로의 준비 과정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변화, 지역민 고용 현황 등을 조목조목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민선 5기 당시 749억이었던 지방채를 올해 5월 전액 상환, ‘지방채제로’를 실현한 성과와 관련해서는 “신심성·소모성·낭비성 예산 배제 등 예산낭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정을 건전화한 결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2026년 상환 계획이었는데 10년 앞서 조기상환해서 49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절감액은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정읍 농업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정책 관련, 평소 가축방역 노력, 친환경 동물복지 시책 등과 함께 귀농·귀촌 지원 시책 등도 소개했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 잘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더 열심히 뛰겠다”며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팩트풀전북은 전북도 내 정치와 경제 쟁점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30분부터 58분까지 28분여 동안 방송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공무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정읍시보건소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행복생활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지역 응급의료체계구축 사업과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있다고 전했다.

10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총 7회차 과정으로 구조와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 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보건소는 “민원응대나 현지 출장, 각종 행사 진행 등 공무원들 중 직면할 수 있는 심 정지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자동제세동기(AED) 작동법



과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이론교육 후 심폐소생술 실습과 자동제세동기 실제 사용법에 대한 연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오숙희) 등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실제 다양한 발생 사례를 예로 들며 상황별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정읍과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은 최적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고창군보건소가 12월까지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해 영양취약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가구(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직장 7만3864원·지역 6만3864원)의 임신부와 출산·수유부, 만 6개월 미만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취약상태 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주민등록상 고창군 거주자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 구분

과 특성에 따라 구성된 6가지 보충식품 패키지 중 해당된 패키지가 월 2회 정기적으로 가정까지 배달되며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게 된다.

사업 수혜기간은 총 1년이며 참여 후 6개월이 지나면 영양평가 및 소득 평가를 통해 자격 재평가를 실시한다.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임신부는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체 계측과 빈혈 검사 등 영양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영양플러스실(063-560-87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2017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받아

문화장 등 8개 부문... 시, 내달 1일까지 읍면동·시청 총무과서 접수

정읍시가 2017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정읍시는 “정읍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정읍시민의 장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정읍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귀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선발 분야는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명예시민의장 총 8개

부문이다.

추천 대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단, 애향장과 시민의 장은 예외)이다.

희망자는 기관장과 해당 분야의 사회단체장, 읍·면·동장 및 관·과·소장 등의 추천을 받아 9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총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자들에게 대한 철저한 현지

사실조사와 정읍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분별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올해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jongup.gok.kr)를 참고하거나 총무과(063-539-513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2명이 정읍시민의 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신림면, 환경정화활동 펼쳐

고창군 신림면이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신림면은 기관사회단체들이 면내 주요 거리를 임양해 가꾸고 관리하는 5단계 50양거리'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태환경협의회 신림지회(지회장 안대영) 회원들은 신림지정승거, 신림면저수지 등에서 불법투기된 쓰레기 등을 찾아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밖에도 신림면 기관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의 일환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이와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출방법,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의 시간도 가졌다.

신림면 이종선 면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속에 마을 가꾸기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더 깨끗하고 청정한 신림면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several bottles of wine,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